

死海 하박국註釋 研究

吳 秉 世*

◇목 차◇

- I. 하박국주석의 발견
 - 1. 외관
 - 2. 주석방법
 - 3. 해석에 적용된 인물들
 - 4. 사건요약
 - 5. 주석의 개요
 - 6. 관련된 인물들과 역사적 사건
 - 7. 하박국 주석의 중요성
- II. 본문해설
 - 제1란에서 제13란까지
- III. 문제점들
 - 1. 하박국주석에 나타난 본문
 - 2. 깃딤은 누구인가?

I. 하박국주석의 발견

팔레스타인의 사해 서편 동굴에서 많은 고대 문서들이 발견된 것은 20세기의 놀라운 사건으로 인식되어왔다. 그중에 1947년에 알려진 제1호 굴에서 발견된 하박국주석은 쿰란종파 사람들이 구약 하박국서를 어떻게 주석하였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재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석을 통하여 당시의 주석방법과 아울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1. 외관

이 하박국주석의 두루마리는 길이가 141.9cm이고 폭이 13.7cm이다. 그러나 본래는 더

* 교수, 성경신학

길고 더 넓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¹⁾ 한란(column)은 15줄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두루마리는 두개의 부드러운 가죽을 아마(linen) 실로 꿰매어 만들었다. 털있는 면을 밀고, 부드럽게하여 그 위에 기록하였는데, 가죽의 부피는 대개 0.5mm 이상이다. 부드러운 면을 자로 재어서 줄을 그었는데, 줄을 긋는데는 세밀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여백도 잘 재어서 남겼다. 두루마리는 제일 처음부분이 없고, 또 두루마리의 밑부분은 허물어져 없으며, 어떤 란에는 구멍이 생긴 것도 있다.

두루마리의 기록 형편은 성마가의 이사야 사본(St. Mark's Isaiah Scroll)보다 더 깨끗하게 기록되었고, 선이 곧고 글자가 매우 선명하다. 하박국주석의 서사는 경험 있고 실수가 적은 전문가로서, 문장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었고, 하나님의 이름 네글자(YHWH)를 고어체로 기록하여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하박국주석에 사용된 언어는 성마가의 이사야 사본에 쓰여진 것과 같은 철자와 문법으로 되어 있으며, 언어는 비교적 단순하고,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 성경과 같다. 그리고 글자가 가장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다.²⁾ 대체로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은 보고 베끼든지, 다른이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쓰든지, 또는 암송하고 있던 성구를 기록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할 때에 무의식적인 실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자기 주관이 가미되어 서사의 의향대로 수정된 것도 있지만 하박국주석은 비교적 실수가 적은 사본이다. 그리고 서사는 한 면과 다른 면 사이에 여백을 비교적 적게두고 있다. 하박국주석에 쓰여진 철자법과 문법은 아람어와 사마리아 방언과 랍비문학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2. 주석방법

하박국주석은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종파의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는데, 이 종파는 그 당시 자신들이 처해있는 국가적, 종교적 형편이 선지자 하박국으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주석가의 주된 관심은 의로운 선생과 그의 제자들을 박해한 악한 제사장이었다. 즉 저자는 의로운 선생이 가지는 임무는 새 언약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해석하는 일이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석가가 악한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유대교의 제사장을 뜻하는데 콤란종파에서 볼 때에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요, 콤란종파의 지도자인 의로운 선생을 핍박하는 악한자로 보았다.

주석가는 하박국 본문을 인용할 때에 처음 한절이나 또는 몇마디 말을 쓰고 그 직후에 주석을 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주석이 어떻게 성립되며, 당시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1) Millar Burrows, editor, *The Dead Sea Scrolls of St. Mark's Monastery*, Vol. I *The Isaiah Manuscript and the Habakkuk Commentary*, New Haven :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50, XXI.

2) Charles T. Fritsch, *The Qumran Community : Its History and Scrolls*, New York : Bible and Tannen, 1972, p. 33.

말하였다.³⁾ 각 절이나 구는 전체 문맥과 관련없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뜻과 비슷한 발음을 따라서 적당히 해석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철자를 달리함으로 새로운 뜻을 창출해내기도 하였다. 저자는 하박국서를 자신이 아는 사건에 적용해서 해석하였다. 곧 갈대아인들이 오는 것을 깃담이 오는 것으로 말하였으며, 갈대아인들에 대한 징벌을 악한 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징벌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성경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에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⁴⁾

3. 해석에 적용된 인물들

하박국주석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하여 이 종파에서는 특별한 뜻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면, 깃담은 침략자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리고 의로운 선생은 영감되고, 핍박받은 자인 반면에 악한 제사장은 탐욕이 많은 자이며, 술 취하고 경건치않고, 정죄당한 자이다. 거짓의 사람과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암살롬의 집은 알려지지 않는 이유때문에 의로운 선생을 도와준 백성의 단체이다. 하박국주석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민은 진리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요, 유대인중의 단순한 자들이다. 그런데 거짓의 사람에 대해 Brownlee는 피홀리는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라고 하였으니, 선민을 피홀리는 자이다.⁵⁾

4. 사건요약

하박국주석에 나오는 사건을 대략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깃담이라는 외국 세력이 예루살렘과 열국을 침공하려 하였다. 이 위급함을 보고 콤란종파의 대표자격인 의로운 선생이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의로운 선생은 본래 예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제사장이었다고 하는데, “의로운 선생”이란 말이 하박국주석에 7회 쓰여졌다. 이 의로운 선생은 유다집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이며, 악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이다.⁶⁾ 그러나 하박국주석 자체로서는 의로운 선생이 제사장이었다고 말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직 시편37편 주석등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⁷⁾

거짓의 사람이 의로운 선생을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었다. 암살롬의 집이라는 무리는 의로운 선생이 고난당할 때에 도와주지않고 침묵을 지켰다. 악한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였는데, 교만하여 하나님과 율법을 저버리고, 강포로써 재물을 취하고 더러운 일을 행

3) G. R. Driver, *The Judean Scrolls*, Oxford : Blackwell, 1965, p. 127.

4) Charles F. Pfeiffer,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Bible*, New York : Weatherrane Books, 1969, p. 67.

5) W. H. Brownlee, *The Meaning of the Qumran Scrolls for the Bibl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103.

6) William Sanford LaSor,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1972, pp. 106-107.

7) Geza Vermes, *The Dead Sea Scrolls*, Cleveland : Collins and World, 1978, p. 144.

하였다. 그리고 악한 제사장이나 의로운 선생이 어떤 육체적 질병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악한 제사장은 의로운 선생과 그의 추종자들을 해롭게하였기 때문에 그의 원수들에 의해 징벌을 받았다. 대속죄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 아마 의로운 선생과 악한 제사장이 공적으로 충돌하고, 의로운 선생이 잡혀서 심판을 받은 것 같다. 악한 제사장이 의로운 선생을 꺾박하였는데, 이 꺾박의 목적은 일종의 징벌로 생각된다. 아마 악한 제사장이라고 생각되는 한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떤 사람(아마 의로운 선생의 추종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일을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 사건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5. 주석의 개요

1) 종교형편

하박국주석 1란 1:1-2:10a 까지의 내용에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하박국서 1:1-5 를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 악한 제사장과 의로운 선생을 통하여 마지막 세대에 알게하신 새로 기록된 언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2) 국가적 또는 국제적 형편

2란 10b에서 6:12b의 내용인데, 이것은 약속의 땅(성지)이 깃딤에게 종속될 것을 말하는데, 깃딤은 하박국 1:6의 갈대아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3) 의로운 선생과 그의 무리

6란 12b에서 8란 3a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하박국 2:1-4의 주석이다. 이 부분에서 하박국선지의 임무(하박국 2:1-2a)와 의로운 선생의 임무(하박국 2:2b), 그리고 의인들이 그들의 노력과 의로운 선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 하였다 (하박국 2:3-4).

4) 악한 제사장과 그의 무리

8란 3b-12란 10b의 내용인데, 이것은 하박국 2:5-17의 주석이다. 악한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의 성격과 그들의 파멸을 기록하고, 또한 무리들의 탐욕과 의로운 선생의 수난을 서술하며, 거짓 예언에 대한 비난을 기록하고 있다 (10:9이하).

5)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파멸

12란 10b-13란 4의 내용인데, 이것은 하박국 2:18-20의 주석이다.

주석가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흉한 종말 곧 그들이 심판날에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다.

6. 관련된 인물들과 역사적사건

하박국주석에서 어떤 시간적인 경위를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 등장한 인물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여러가지 학설이 생겨났으며, 견해가 같지 않다. 첫째 견해는 깃딤이 로마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또한 그와는 달리 깃딤을 the Seleucids 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은 없다. 그런데

악한 제사장을 the Hasmonian 왕 Alexander Janneus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 시대는 104-78 B.C. 라고 할 수 있다.

이 하박국주석을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의 Sukenick 교수는, 이것은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미국 The Johns Hopkins 대학교의 W. F. Albright 교수는 기록연대가 예수님의 탄생 직후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하박국주석은 창세기 가경과 함께 사해문서중에 후대에 쓰여졌던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7. 하박국주석의 중요성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히브리어 본문은 the Leningrad manuscript 인데, 이것의 연대는 주후 1009년 혹은 1008년 이라고 생각한다.⁸⁾ 그것과 비교해서 하박국주석은 약 1,000년이 빠르게 기록된 본문이라는 점에서, 또한 본문비평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박국주석을 통해서 이 주석을 기록한 자가 속한 쿰란종파의 문제점들을 알게되며, 의로운 선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의로운 선생은 이 종파의 지도자였으며, 아마도 이 종파의 창설자였다고 생각된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예언해석의 은사를 받아서 해석을 했는데, 심지어는 하박국 선지 자신이 해명하지 못한 것도 해석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박국주석을 통해서 당시의 성경해석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문비평에서 하박국주석의 본문과 마소라 본문을 비교해 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승사본(마소라)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승되었는가를 알게되어 큰 도움이 된다.

II. 본문해설

제 1 란

사해 하박국주석의 본문을 13란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제1란의 첫 9줄은 너무 허물어져서 단편이 되어 있음으로 본문을 재건하기가 곤란하다. 문장으로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열째줄부터인데, 그것이 하박국 1:4이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주석을 그대로 번역하고 거기에 따른 가능한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⁹⁾

1:4 그러므로 율법이 마비되고. [이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의인들을… 의로운 선생이다.”

8)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 Deutsche Bibelgesellschaft, XIII.

9) 먼저 하박국 주석가가 인용한 하박국서 본문을 쓰되 활자를 달리하고 다음 주석가의 주석을 인용표를 사용하여 인용하고, 마지막에 해설을 가하기로 한다. 그리고 [] 의 표시는 그안에 있는 문자가 본문에는 없는 것을 알리는 표이다.

이상이 하박국 1:4의 첫부분과 그에 대한 해석이다. 선지자 하박국의 예언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음으로 공의가 급게 행함이니이다” (1:4) 에 대한 해석을 주석가가 시도하였으나, 사본이 너무 허물어져서 남아있는 부분으로는 문장을 맞추기가 쉽지않다. 하박국주석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거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문은 “마비된다” “해이하다” “악하다” “효력을 잃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재건해 보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포위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쓰여진 악한 자는 악한 제사장이요, 의인은 “의로운 선생” 이라고 해석한다.¹⁰⁾ “그러므로 공의가 나아가다...” 공의가 바로 행해지지 못하고, 급게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겠으나, 본문이 허물어져서 “급게”라는 말이 없고, “나아가다” 라는 말만 남아있다.

제 2 란

제2란의 첫째 글자는 하박국 1:5의 마지막 글자 YESUPAL 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는 말의 “가라사대” 곧 “말씀하였다” 는 뜻이다. 아마 하박국 1:5이 제1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한다.

주석가는 하박국 1:5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거짓의 사람들과 함께 반역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받은] 의로운 선생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규와 새 [언약]을 저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않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 하였다. 이 말의 뜻은 말일에 반역하는 자들에 관한 것인데... 그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세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들어도 믿지않을 것이다.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의 뜻을 가르칠 자로 [유다집에] 주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임한 모든 것을 알게하셨다.”

1:6a 불지어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으니,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이것은 짓딤에 관한 것인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파하는 빠르고 전쟁에 용감한 자들이다. 짓딤의 통치하에 [세상이 함락한다]...[악한자들이 그것을 볼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는 것이다.”

1:6의 갈대아인 (HAKKASDIM) 이라는 말을 주석하면서 주석가는 짓딤 (HAKKITHIM) 이라고 하였다. 하박국주석에서 사용한 1:6의 본문은 분명히 갈대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석할 때는 짓딤이라고 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B. Duhm 과 그를 따르는 C. C. Torrey 는 하박국 1:6의 본문이 본래 갈대아인이 아니라, 짓딤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 그러나

10) W. H. Brownlee, “The Jerusalem Habakkuk Scroll,”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No. 112 (December, 1948) p. 8 ff.; F. F. Bruce, *Second Thoughts on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1956, p. 71.

11) C. C. Torrey, “Alexander the Great in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Festschrift for K. Marti,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925. p. 283.

전송되어온 본문은 분명히 갈대아인으로 되어있다. 이상에서 볼 때에 주석가는 비록 본문이 갈대아인 곧 바벨론사람으로 되어있지만 짓딤으로 해석했는데, 짓딤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위해서 새우신 세상의 권세를 뜻한다고 하고 있다.

제 3 란

“그들이 평야를 건너고, 그 땅의 도시들을 살륙하고 약탈한다. 이것은 그가 말한바 그 대로이다.”

1:6b-7 자기의 소유아닌 거할곳들을 취한다. 그는 두렵고 무서우며, 그의 공의와 멸망이 그 자신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짓딤에 관한 것인데, 그의 두려움은 모든 나라들을 향한 것이다. 그리고 계획중에 나타난 그들의 목적들은 악하다. 피와 속임으로 그들은 모든 백성과 함께 걸어간다.

1:8-9. 그의 말은 표범보다 더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더 사나우며, 벌리고 퍼지고, 그의 말탄 자는 멀리서 날아오는데, 독수리의 날음과 같고, 삼키기에 빠르다. 이들은 모든 강포를 행하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편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짓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짐승으로 땅을 짓밟는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오는데, 바다의 섬으로부터 와서 독수리같이 모든 백성을 삼키나, 만족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맹렬한 노와 그들의 격노중에 모든 백성과 함께 이렇게 말한다.” 여기 바다의 섬들은 종종 해안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태리 해안이라고 Dupont-Sommer 교수는 해석하였다.¹²⁾

제 4 란

1:10a 그가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한다. “이뜻은 그들이 위인들을 비웃고, 존경받는 자를 멸시하며, 의로운 왕들을 향하여 욕을 한다. 그들이 많은 백성을 조롱한다.”

1:10b 그가 모든 요새를 비웃고 땅을 쌓아올려 그것을 취한다. “이것은 짓딤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은 백성의 요새를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는다. 그들이 많은 백성과 함께 둘러싸고 취하며, 두려움과 공포중에 요새들을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진다. 그 요새안에 거하는 자들의 허물때문에 그들이 요새들을 파한다.”

1:11 그리고 그가 바람같이 지나가고, 이 사람은 그의 힘으로 그의 신을 삼는다. “이것은 짓딤의 통치자들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범죄의 집의 충고를 따라 행하는 자들로서, 한사람을 그의 동료통치자들 앞에서 옮긴다... 이 후에 그들은 백성을 멸하려 나아가다.”

이 부분(11행과 12행)은 문장을 재건하기가 매우 어렵다. 마소라사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그의 힘이 그의 신이다.” 그런데 위 주석중 “한사람을

12) A. Dupont-Sommer. *The Essene Writings from Qumran* trans. by G. Vermes, Gloucester : Peter Smith, 1973. p. 260.

그의 동료통치자들 앞에서 읊는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그들이 각자로 하여금 그의 동료들보다 더 범죄케 한다.”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나 범죄케 한다(YAABIRU)라는 것보다 “읊는다” 또는 “지나간다” 라고 번역하는것이 낫다고 Brownlee 와 Burrows 는 주장한다.

제 5 란

1:12b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임명하셨습니다. 주 반석이시여, 징벌을 위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1:13a 주의 눈은 악을 보시기에는 너무 정결하시며, 악행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 귀절의 뜻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멸하지않으시며, 도리어 열국의 심판을 그의 선민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징계중에 모든 백성의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 그런고하면 그들이 오작, 환난때에 그의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의 눈은 악을 보시기에 너무 깨끗하시다’고 하였다. 이 뜻은 그들이 악인의 파멸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치않기 때문이다.

1:13b 어찌하여 반역자들을 보며, 악인이 자신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합니까?

“이것은 압살롬의 집과 의로운 선생의 책망에 잠잠한 혐의회 사람들에 관한 말인데, 이들은 모든 백성중에서 율법을 거부하는 거짓의 사람을 대항하는 의로운 선생을 돕지않던 자들이다.”

여기 압살롬이란 말은 익명의 사람에 관한 것인데, 주석가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않았다. 아무튼 압살롬의 집과 그 동조자들이 의로운 선생이 고난을 당하는데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¹³⁾ 압살롬에 대해서 몇가지 해석들이 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자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유대인 공의회인 산헤드린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박국주석가가 불 때에 산헤드린이 반역자요, 배신자라는 것이다. 셋째 해석은 역사적 인물로 생각해서 Onias III (165 B.C.경 Antiochus로 말미암아 실각당한자) 나 Onias the Just (65 B.C.)나, 또는 Aristobulus II 의 장인으로 63 B.C.에 Pompey 에 의해 사로잡힌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¹⁴⁾

정리해 보면 의로운 선생은 성전의 두목이요, 열심당의 두목으로서, 악한 제사장의 무리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는데, 이때에 제3자적인 압살롬의 집의 무리가 마땅히 의로운 선생을 도와야할터인데 돕지않았다는 것이다.

1:14-15 주께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만드시며, 그들위에 다스리는 기는 것들같이 만드셨습니다. 그가 그들을 모우고, 그의 그물로 취하고, 초망으로 모우고 기뻐합니다.

13) Cecil Roth, *The Dead Sea Scrolls : A New Historical Approach*, New York : W. W. Norton, 1965, p. 74.

14) A. Dupont-Sommer, *op. cit.*, p. 261.

제 6 란

[이것도 또한] “깃땀을 가리킨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전리품과 같이, 또 바다의 고기같이 모운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앞에 분향한다’ 고 한다. 이 뜻은 그들이 그들의 표준들에 제사하고, 전쟁무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러한 것이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다.

1:16b 그의 분깃은 풍부하고, 그의 식품은 풍성하다.

“이것은 명예와 공물을 그들이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공물은 모든 백성을 위한 해마다의 식물인데, 이로 인하여 여러나라가 황폐해졌다.”

1:17 그런고로 그가 계속해서 그의 검을 빼서 긍휼없이 열국을 살육한다.

“이것은 검으로서 청년, 장년, 노년, 부녀자, 소년들을 멸하고, 태의 소산을 불쌍히 여기 지않는 깃땀사람들을 말한다.” 여기 하박국주석의 본문은 검(CHARBO)이라고 하고 있으나, 마소라사본은 그물(CHERMO) 이라고 하고, 그물을 땀고 있다고 말하였다. 검과 그물이 B와 M의 발음의 글자 차이로 뜻을 달리하고 있다.

제 2 장

2:1 내가 나의 망대에 서고 나의 초소에 서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지켜보며, 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까 보려고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환상을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리는 자가 읽게하라’ 고 하였다.

제 7 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세대에 임할 것들을 기록하라’ 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는 때에 대해서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달리는 자가 읽는다’ 는 귀절의 뜻은 의로운 선생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들의 모든 비밀을 알게하신다.”

여기 의로운 선생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가 완전히 납득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다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의 해석자라는 것이다.

2:3a 이 환상은 아직 정한 때가 있어, 그 종말을 말하고, 거짓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마지막이 늦어지며,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의지한다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다.”

2:3b 비록 늦어지나 기다려야하리니, 이는 그것이 분명히 오고, 지체하지않기때문이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진리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요, 그들의 손(手)들은 종말이 늦게와도 진리의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는자들이다. 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때는 기한이 되어 이르는데, 이는 그의 지혜의 오묘함속에 작정하신 것이다.”

2:4 불지어다 그의 영혼은 부풀어 올라 바르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두배의 보수를 쌓은것을 말한다.”

여기에 나타난 주석가의 해석은 말재주(word play)를 부리고 있다. 마음이 “교만하다” “부푼다”는 말은 APHAL 인데, 이 말과 비슷한 발음의 말인 KAPHAL 을 대치시켜 “갑절이 된다” “두배가 된다” 라는 말과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갑절이 된다”(KAPHAL) 라고 할 때에 이사야 40:2의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와 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를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¹⁵⁾

제 8 란

“이것은 율법을 전부 준행하는 유다집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와 의로운 선생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심판의 집에서 구하신다.”

하박국 2:4b 의 본문은 바로 앞 란 밑부분에 있었으나 지금은 파손되어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박국 주석가도 의로운 선생을 믿는 개인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다. 여기 말한 그의 믿음(EMUNATHO)이란 개인적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의 로마서 1:17과 갈라디아서 3:11에서 해석한 것과 뜻이 통한다. 그렇지만 하박국 주석은 자신들의 수고를 앞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않으니 여기에 차이가 있다.

2:5 실로 재물은 쾌락하며, 오만한 자는 쉬지않고 음부같이 그 욕심을 넓히고, 사망같이 죽한줄을 모른다.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모여오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모여온다. 2:6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여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것을 모우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그는 오직 서약을 쌓지 않겠느냐?고 한다.

“이것은 직임에 처음 임할 때에 진리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악한 제사장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신을 저버리고, 재물때문에 법규들을 어기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했던 포악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모았다. 그는 백성들의 재물을 취하여 죄와 허물을 더하였으며, 그가 모든 부정과 불결한 가증한 길들로 행한다.”

마소라사본에는 “술(HAYAIN)은 괴악하다”라고 하였으나 사해 하박국주석은 “재물”(HON) 은 괴악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인(HAYAWAN) 으로 읽은 학자도 있다 (C. C. Torrey). 그리고 이 시대가 어느때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때를 Seleucides 의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

2:7 그들이 돌연히 일어나 [값을 것]을 너에게 강요하지 않겠느냐? 너를 두렵게(괴롭게) 하는 자들이 깨지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2:8a 이는 네가 여러나라들을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백성의 남은 자들이 너를 노략하리라.

15) T. H. Gaster, *The Dead Sea Scriptures in English Translation*, Garden City : Anchor, 1956, p. 267.

“이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범한 반역하는 제사장을 말하는데...”

제 9 란

“이로 말미암아 악의 심판으로 치는 것을 자취한다. 악한 질병들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댓가를 그의 육체에 받았다. ‘이는 네가 여러 나라들을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백성의 남은 자들이 너를 노략하리라’ 라는 귀절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서 재물과 노략물을 소유하다가, 남은 백성 곧 깃딤사람의 수중에 노략당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Dupont-Sommer 는 여기 “반역하는 제사장”을 가리켜서 악한 제사장 Hyrcanus II 일 것이라고 하였다.¹⁶⁾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는 잡혀서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Pompey 의 지지자들에 의해 옥중에서 독약으로 죽임을 당한 자라고 생각된다. 일설에 의하면 악한 제사장은 질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악한 질병으로 죽었다는 것이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역사적 견지에서 보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귀절들의 실제적 형편이라기보다는 상징적(typical)인 것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박국주석가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부패상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하였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것을 말하였다.

2:8b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악한 제사장을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율법을 바로 가르친 자]와 그와 관계있는 자에게 악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 그가 하나님의 선민을 향하여 악행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파멸의 징계와 영혼의 고통으로 괴롭게하셨다.”

2:9-11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데 깃드리며, 자기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를 취하는 자여! 네가 많은 백성들을 멸한것이 네가 계획한 것이나 네집에 욕이되고, 네가 네 자신(영혼)에게 죄를 범한것이다. 이는 담(벽) 에서 돌이 부르짖고, 목조부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제 10 란

[이 뜻은] “이들들은 압박을 통해서 놓여졌고, 그 나무들보는 도적하여 놓은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많은 백성을 멸하고, 네가 네 자신에게 죄를 범하였다’ 는 뜻은 심판의 집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중에서 이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거기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 백성중에서 정죄하시고, 유향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하박국주석가는 여기서 종말론적 용어를 사용하였으니, 곧 “심판의 집” 이다. 이것은 스올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옥에 갇혀있어

16) A. Dupont-Sommer, *op. cit.*, p. 264, T. H. Gaster, *op. cit.* p. 268.

마지막 불심판 때에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계시록 20:13-14 참조, W. H. Brownlee) 우리가 제8란에서 본 바와 같이 의인들은 그들의 수고와 의로운 선생을 믿는 믿음때문에 심판의 집에서 구원받는다 하였고.

2:12-13 화 있을진저 피흘림으로서 도성을 건축하며, 불의한 행동으로 도읍을 건설하는 자여! 이것이 실로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인데, 백성들이 스스로 불을 위해서 일한 것이요, 나라들은 무익한 것으로 스스로 곤비하게 되었다.

“이것은 거짓의 전달자를 말하는데 그는 그의 허영의 도시를 피흘림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이며, 그들의 노력은 헛것을 위해서 바치고, 거짓의 행동으로 그들을 교훈한다. 그 결과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거짓된 것을 증명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확대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고 불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헛된 도시의 건축에 대해서 H. H. Rowley 는 이것이 Antiochus Epiphanes 때 다윗성을 재건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마카비서 1:33로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Rowley는 또한 악한 제사장을 Menelaus 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¹⁷⁾ 헛된 도시에 대해서 Dupont-Sommer 는 이것을 가이사가 47 B.C.에 Hyrcanus II에게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건축하도록 명한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하박국주석가는 도성의 재건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¹⁸⁾

2:14 대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제 11 란

“...거짓. 그리고 그후에 그들에게 지식이 나타났다. 마치 물이 바다에 충만한것 같이.”

2:14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말하는 세 귀절중의 하나이다(하박국 1:13; 2:4; 2:14) 이 부분에 있어서 제10란의 밑부분이 없어서 잘 알 수 없으나 틀림없는 사실은 거짓의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일것이다 (제2란 1-2행비교).

2:15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고 그의 노를 더하여 그들로 취케하며 그들의 축연을 보고자하는 자여.

“이것은 의로운 선생을 꾀박했던 악한 제사장을 말하는데, 악한 제사장은 그의 노로 의로운 선생을 삼키고자 그를 정배보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남은 기간중인 축제일 마지막에 그 악한 제사장이 그들앞에 장엄하게 나타나서 그들을 삼키려하고, 그들의 휴식하는 안식일인 금식일에 그들에게 울무를 놓았다.”

하박국 2:15 마지막에 있는 “그들의 축연”은 마소라사본에는 “그들의 벗은 것” (하체, MEOREHEM)이라고 하였으나, 하박국주석은 “축연”(MEODEHEM) 이라고 하였다. 곧 마

소라사본은 “R”을 쓰고 하박국주석은 “D” 로 보았다. 그런데 축제일 (MEODEHEM) 이 또한 울무가 된다고 해서, 축제일이 회중에게 장애가 되는 날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박국주석가의 해석중 “그가 그들앞에” 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악한 제사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Dupont-Sommer 는 이것을 의로운 선생으로 보았다.¹⁹⁾ 대속죄일은 금식과 휴식으로 지켰는데, 이날은 안식하는 때라고 레위기 23:32에는 기록하였다.

2:16 네가 영광대신 수치로 만족하고, 너도 마시고 비틀거리라, 주의 손이 너를 두르고 부끄러움이 너의 영광위에 입하리라.

이것은 그의 부끄러움이 그의 영광보다 더 큰 제사장을 말한다. 이는 그가 그의 마음의 양피에 할례를 받지않고, 그의 탐욕의 갈증을 없이하기 위해서 그의 폭음폭식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를 부끄럽게함으로 그가 커가는 것은 부끄러움과 고민이다.”

2:16의 본문중 “비틀거리다”(HERAEL) 로 되어 있으나 마소라사본은 할례아니한 것(HEAREL) 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글자 하나를 바꾸어 놓음으로 뜻이 달라진 경우이다. 하박국주석가는 본문에서는 “비틀거리다” 라고 하고는 해석할 때는 마소라사본대로 양피에 할례를 받지않았다고 하였다.

제 12 란

2:17 [짐승의 강포가] 너를 두렵게한다. 이는 사람의 피흘림과 땅과 도성과 그 모든 거민위에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악한 제사장을 말한다. 그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푸대접한 것만큼 자신도 되갚음을 받게된다. 여기 ‘레바논’ 이라는 것은 회중의 혐의회를 말하며, ‘악한 짐승’이란 율법을 지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파멸로 징계하시라 전멸하시리니, 그(악한 제사장)가 가난한 자를 전멸한대로 갚으신다. 그리고 ‘도성에서 피흘리는 것과 땅에서 강포한다’는 말의 ‘도성’ 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도성에 있는 악한 제사장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뜻이고, ‘땅의 강포’ 는 유대인의 도성들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탈취하였다는 뜻이다.”

위 해석중 ‘레바논’ (HALEBANON) 이란 희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상(頂上)이 흰것을 말한다. 이 해석에 있어서 회중의 형제들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레바논 곧 희다고 해석한 것이다.

2:18 새긴 우상의 제작자가 그것을 조각할 때에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부어만든 우상이나, 거짓의 선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병어리 우상을 만든자가 그 만든 것을 의지한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섬기고 예배하려고 만든 우상들에 관한 것이다. 심판의 날에 그들을 구하지 못한것이다.”

17) H. H. Rowley, *The Zadokite Fragments and the Dead Sea Scrolls*, Oxford, 1952, p. 67.

18) A. Dupont-Sommer, *op. cit.*, p. 265.

19) A. Dupont-Sommer, *op. cit.*, p. 266.

2:19 화 있을진저! 나무더러 [말하기를] 깨라하며 [병어리 돌을 보고 일어나라 하는 자여!]

제 13 란

2:20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뜻은 돌과 나무를 경배하는 모든 나라들에 관한 것이다. 심판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우상(나무)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을 멸시하시고, 악한 자들을 땅에서 끊어버리신다는 뜻이다.”

하박국주석에서는 우상을 가리켜서 “바다의 나무” 라고 하였다.

III. 문제점들

하박국주석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박국주석에 나타난 본문

사해 하박국주석은 하박국서의 1장과 2장만의 주석을 하고 있다. 주석의 제일 마지막은 13란으로, 이것은 오직 4행에서 끝나 여백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하박국 2장 20절이다. 하박국주석가는 하박국서 3장은 취급하지않고 1장과 2장만을 주석하였다. 그렇다고 하박국서의 본문이 1장과 2장뿐이었다고 할 이유는 없다.²⁰⁾

하박국서는 두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부는 제1장과 제2장으로, 이것은 하박국의 목시(HAMMASA, 1:1)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장래 일을 예언하는 목시만을 주석하였다. 그러나 제2부는 3장으로서 이것은 기도(TEPHILLAH, 3:1) 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박국주석가는 예언인 1,2장만을 주석하고, 기도인 3장은 주석을 하지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박국서가 3장으로 되어있다는 다른 증거는 주전 3세기에 번역된 헬라어 구약 70인역(The Septuagint) 으로 여기에 3장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분명하다.

그리고 하박국주석에 쓰여진 본문은 마소라본문과는 다른 전통에서 내려온 것으로 생각되며, 하박국주석에 인용된 본문이 하박국서의 본문보다 더 우수하여 마소라본문을 수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2000년전에 기록한 하박국주석의 본문이 잘 전승이 된 것과 아울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의 하박국 본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승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사해 하박국주석에 쓰여진 본문귀절 가운데 60개가 마소라 본문과 다르다.

2. 깃딤은 누구인가?

원래 깃딤은 구브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Larnaka 부근에 거주하던 베니게 주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헬라섬이나, 동쪽 지중해 근방에 살고있던 주민들에

20) M. Burrows, *op. cit.*, p. 322.

대해서 쓰여졌다. 또한 깃딤은 로마인들을 가리킨다 (다니엘 11:30).

이 깃딤은 결과적으로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하는 문제가 된다. 헬라인으로 보아 알렉산더대왕의 후계자들이라고 한다면, Antiochus IV(175-163 B.C.)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깃딤을 알렉산더대왕의 아시아정복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추측인것 같다. 그러나 깃딤을 로마사람으로 생각하는 자들중에는 이것을 로마의 대장 Pompey 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63 B.C. 이전이라고 생각한다. 깃딤이 로마인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깃딤이란 침략자나 정복자를 가리키는데 쓰여진 말이다. 하박국주석가는 이 깃딤을 동시대인으로 취급하며, 이 침략자가 다가오는 것을 세상의 종말의 징조로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 Allegro, John.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Penguin Books, 1956.
- Brownlee, William Hugh. *The Meaning of the Qumran Scrolls for the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Bruce, F. F. *Second Thoughts on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1956.
- Burrows, Millar.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Viking Press, 1956.
- Cross, Frank Moore, Jr.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and Modern Biblical Studies*. New York: Doubleday, 1958.
- Drive, G. R. *The Judean Scrolls*. Oxford: Blackwell, 1965.
- Dupont-Sommer, A. *The Essene Writings from Qumran*, translated by G. Vermes. Gloucester: Peter Smith, 1973.
- Fritsch, Charles T. *The Qumran Community: Its History and Scrolls*. New York: Bible and Tannen, 1972.
- Gaster, T. H. *The Dead Sea Scriptures*. Garden City: Doubleday, 1956.
- Harrison, R. K.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Harper and Row, 1961.
- LaSor, William Sanford.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2.
- Mansoor, Menahem.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1964.
- Pfeiffer, Charles F. *The Dead Sea and the Bible*. New York: Weatherline Books, 1972.
- Rabin, Chaim. *Qumran Studies*. New York: Schocken, 1975.
- Roth, Cecil.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W. W. Norton, 1965.
- Ringgren, Helmer. *The Faith of Qumran: Theology of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by Emilie T. Sand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3.
- Schonfield, Hugh J. *Secrets of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A. S. Barnes, 1957.
- Schubert, Kurt. *The Dead Sea Community: Its Origin and Teachings*, translated by John W. Doberstein. Westport: Greenwood Press, 1959.
- Treuer, John C. *The Dead Sea Scrolls: A Personal Account*. Grand Rapids: Eerdmans, 1965.
- Vermes, G. *The Dead Sea Scrolls in English. The Dead Sea Scrolls: Qumran in Perspective*. Baltimore: Penguin Books, 1962.
- . *The Dead Sea Scrolls: Qumran in Perspective*. Cleveland: Collins and World, 1978.
- Wilson, Edmund. *The Dead Sea Scrolls 1947-196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Yadin, Yigael. *The Message of the Scroll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7.

An Introduction the Theology
of Klaas Schilder

J.M.Batteau*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Klaas Schilder by J.M.Batteau
(A Lecture Delivered at Kobe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Kobe, Japan, on June 1, 1988)

Klaas Schilder (1890-1952)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formed theologians of the 20th century. His thought might be best called a combination of uncompromising orthodoxy and new Biblical insights. As professor of Dogmatics in Kampen, as editor of the weekly *De Reformatie* (The Reformation), as a preacher, and as a polemicist, he declared his full allegiance to the infallibility of the Bible. He was clear in his commitment to the confessional standards of 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D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the Belgic Confession,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the Canons of Dordt. And yet he was not merely conservative. He wanted to modify important doctrines in a more biblical direction, he wanted to see preaching renewed, and he was unsatisfied with many of the "conservative" aspects of Dutch church life. Like Abraham Kuyper before him, Schilder desired to be Reformed-and-always-reforming¹⁾

In this lecture I hope to give you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motifs of Schilder's theology. But in order to do this, we first need to review the general Dutch theological scene, so as to be able to see his place in it. *Then we will listen to Schilder's own words, as he describes his view of the church.*

*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